

온전한 사랑으로 경계를 녹이는 교회



로덴나무 그늘교회

날짜: 2024.04.07
시간: 오전 11시
장소: 친구사이 사정전

예배 순서

예배의부름

사 회 자

신 앙 고 백

다 같 이

찬 송

사랑이 이기네

다 같 이

공 동 기 도

다 같 이

성 경 봉 독

행 4:32~35, 요일 2:7~11, 시 133:1~3, 요 20:19~23

다 같 이

찬 양

다비드 찬양대

설 교

용서 할 수 있는 용기

진원 전도사

봉 헌

다 같 이

공 동 축 도

다 같 이

소 식

사 회 자

파 송

일어서서

*

예배시작 전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부름

사회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고백

다 같이

우리는 온 세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은혜로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매순간 우리의 호흡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습니다.

아멘

찬 송

다 같이

사랑이 이기네

이지음

F C Bb F Dm C Bb

은혜로 열 - 린 생명의 길 - 그 누구도 - 막을수 없 는 사 - 랑 -
우리가 아 - 직 죄인 일 때 - 그 가 먼저 - 우릴사 랑 하 셧 - 네 -

Gm7 C /Bb Am7 Dm

자 격 이 없 - 는 우 리 - 들 이 값 없 이 얻 - 을 수 있 - 도 록 념
우 리 가 주 - 와 함 께 - 살 고 주 께 서 우 - 리 안 에 - 사 신 이

1. Db Maj7 Bbm7 Csus C 2. Eb Bb C

쳐 나 는 - 새 로 운 - 생 명 놀 라 운 - 새 로 운 - 생 명

Dm Bb G7/B C

어떠한 차 - 별도 없 - 이 - 받은 은 - 혜 로 - 어 땡 게 차 별하 - 겠 나

Dm Bb G7/B C

무조건 용 - 서 해주 - 신 - 그사 랑 - 처 럼 - 우리 도 사 랑하 - 리 - 라 사랑하

% F /A Bb Gm7 Eb add9 Bb C A7/C#

- 세 - 사 랑 이 이 기네 - 모든 차 별과 - 미워 - 함은 - 우리 것 이아 - 니네 - 사 랑하

Dm /C Bb add9 F/A 3 Gm7 Bb/C F Fine

- 세 - 사 랑 이 이 기네 - 우리 를 사 랑한 - 사랑 - 으로 -

F /A Bb Gm7 Eb add9 Bb C A7/C#

자 비를 베 - 푸는 것 - 이 심 판 을 이 기 - 네 행 함 이 없 - 는 믿 음 - 은 죽 은 것 이 니 -

Dm /C Bb F/A 3 Gm7 Bb/C F D.S.

차 이로 가 - 르는 차 - 별 은 - 사 랑 을 죽 - 이는 것 - 미워 함 으 론 사 랑 을 말 - 할 수 없 네 - 사랑하

공동기도

야코프 뵈메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길고 어두운 밤 동안에
저를 지켜보시고 제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천사들이 모든 아픔과 위해에서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주님, 제 생명을 온전히 당신께 맡기나이다.
낮 동안에도 계속하여 저를 지켜보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 하느님. 오늘 하루도 저를 다스리시어 옳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십시오. 당신 말씀을 제 머리에 넣고 당신 진리를
제 가슴에 심으시어, 하루 종일 선하고 정직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느끼지 않게 하소서. 모든 거짓과
속임수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위선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제 눈으로 하여금,
당신이 이끄시는 길만 곧장 보게 하시어,
어떤 결길로도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제 눈을 정결하게 만드시어
가짜 욕망이 제 안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공 동 기 도

야코프 뵈메

자비로우신 하느님,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완전하신 몸으로 당신 말씀을 옷 입히셨나이다.
똑같은 순결로 제 영혼을 옷 입히시어
저로 하여금 그분의 완전하심을 나눠 가지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때 옷을 벗기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육신은 죽임을 당하셨나이다.
그런즉 저의 이 몸 또한, 제 모든 죄가 옷을 벗겨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만
순결의 옷을 입을 수 있겠지요.
사랑하옵 하느님, 제 죄를 파멸하사 저로 하여금
영생의 외투를 몸에 걸칠 준비를 갖추게 하소서.

공동기도

야코프 뵈메

사랑하는 하느님,
저에게 순결한 가슴과 지혜로운 머리를 주시어
당신의 뜻에 따라서 제 일을 하게 하소서.
온갖 거짓 욕망과 교만과 탐욕, 질투, 분노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당신께서 제게 주신 모든 일거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 슬픈 사람들,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길 방도를 찾게 하소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재능을 잘 분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행복하게 하되,
나머지는 겸손히 남에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당신이 저에게 주신 것 말고는
저에게 아무것도 없으며
당신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일 말고는
제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늘 깨우쳐주소서.

성경봉독

얇은 글씨는 사회자가, 굵은 글씨는 회중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4:32~35

(다같이)

32.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33.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34.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35.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었다.

성경봉독

얇은 글씨는 사회자가, 굵은 글씨는 회중이 읽습니다.

요한1서 2:7~11

7.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8.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9.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10.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다같이)

11.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성경봉독

얇은 글씨는 사회자가, 굵은 글씨는 회중이 읽습니다.

시편 133:1~3

(다같이)

1.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2.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3.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성경봉독

얇은 글씨는 사회자가, 굵은 글씨는 회중이 읽습니다.

● 요한복음 20:19~23 ●

19. 그 날, 곧 주간의 첫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20.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21.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다같이)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찬양

다비드 찬양대

이삭의 축복

설교

진원 전도사

용서 할 수 있는 용기

봉 헌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시편 121편 정성실 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
너의 좌편에 그늘 되시니 -
낮의 해와 밤의 달 - 도 너를 해치 못하리 - 하나
그가 너를 지키시리 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 서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 다

Copyright (C) 1996 정성실. Adm. By KCMCA.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헌금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아래 계좌로 닉네임과 헌금 종류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약정, 주일, 보금자리, 사랑, 감사, 십일조, 지정)

하나은행 101-910903-80107 ㅇㅎ저 로템나무그늘교회

축도

공동축도

다 같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평화와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와 위로를 담아

나와, 그대와, 세상의 아픈 자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식

1.

예배 후 월례회와 조모임이 있습니다.

2.

오후 2시, 독서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라르티스타'입니다.

파 송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일 어 서 서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미움 다툼 혐오 차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